

## 패권제적 사회질서: 한국인의 삶의 양식과 한국 사회과학의 시대적 과제\*

Imperial Social Order:  
Korean Way of “Lebensführung” and the Urgent Topics for Social Science  
in Korea

박승관\_서울대학교

Park, Sung Gwan\_Seoul National University

이번 세션의 두 분 선생님 발표를 들으니까 역시 한국의 최고의 사회과학자들이 우리 재단에서 배출되어 왔구나하는 생각이 들고, 두 분의 분석을 보면 대단히 치밀하고 심도 있고 조직적이고 새롭고 우리 한국사회의 핵심의 문제를 아마 이렇게 잘 정리한 작업들이 재단 출신 학자들에 의해서 선진적으로 주도되고 있구나 하는 점에서 저 역시도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성장이 되고, 물질적 축적이 이루어져 있는 이면에, 또 경제화가 되고, 테크놀로지의 어떤 부문에서는 세계 첨단을 달리는 데, 왜 이렇게 불통, 불신, 불행 사회가 되었나? 이 원인을 규명하는 데 우리의 사회과학적 노력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고, 지금 두 선생님은 상당히 개인 심리학적 차원하고, 또 사회적 측면에서, 두 차원에서 탁월한 견해들을, 또 분석 결과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불신, 불행, 불통 사회가 되고, 우리

---

\* 이 글은 2014년 11월 27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설립 4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제3세션 “조연결 사회의 경쟁과 행복”에서 논평자로 참여하신 박승관 교수님의 말씀을 트랜스크립트한 것이다. 『정치와 평론』에 논평 내용 수록을 허락한 한국고등교육재단과 박승관 교수님, 그리고 트랜스크립트 작업을 맡아준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의 이해인 학생에게 각각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편집자.

를 고통에 빠트렸는가? 이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분석이 시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양극화 저성장이 이루어졌나 하는 문제와 결합되었다고 생각하는 데, 저는 조금 두 분 선생님께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차원에서 논란의 실마리를 던지고 싶습니다.

뭔가 하면, 개인 심리학적인 접근도 가능하고 사회적 수준의 사회적 질을 분석할 수도 있는 데, 저는 국가 차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유전자적으로, 사회가치 구조상 어떤 특질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느냐, 이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 보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독특한 한국 사회의 ‘소셜 오더’(social order)가 있다. 사회 질서가 있다. 정치학이나 사회과학에서 소셜 오더를 외국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쓰는 데, 우리 문제를 분석하는 데도 이런 거시적인 어떤 분석이 필요하다. 이 소셜 오더라는 것은 뭐냐? 사회의 기본적 작동 방식, ‘모두스 오페란디’(modus operandi)라고 하는 어떤 질서가 있다. 상당히 고유한, 그리고 우리 전통, 문화, 삶의 방식, 행동, 가치 질서에 충분히 내면화되고, 우리가 그것에 서로 얽여가면서 서로 기대면서 닳아가면서 살아가는 어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작동 원리, 즉 조직원리랄까? 지배적 현실이랄까? 이런 게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 가지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우리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패권제적 사회질서, 소위 영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임페리얼 소셜 오더’(imperial social order)라 할까? 이런 것이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 사회, 이것을 막스 베버 식으로 이념형으로 우리가 개념적 작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데, 아까 이재열 선생님이 말씀하신 지위제 문제라든지, 상대적 문제 포함해서, 한국인들의 판단, 선택, 행동, 기회의 생산, 그리고 재생산의 어떤 방식, 이것과 관련된 우리들의 의식과 가치 체계, 행동 체계에 내면화된 어떤 기본 원리들이 있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는 데, 가령 첫 번째로는 지배적 가치, ‘도미넌트 벨류 시스템’(dominant value system)이 뭐냐? 우리

사회에서 역시 권력입니다. 권력!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욕망, 권력 지향적 의식구조, 가치질서가 있다. 그리고 권력자와 친하고, 주관적 객관적 거리를 권력 정점과 주관적 객관적 거리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판단되고 선택되는 그런 원리가 있다.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시골에 가면 검사가 오면 절대 저를 알아주지 않는 문제라든지, 기본적으로 한국의 문화적 형질 안에 이런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최고, 최강, 최종의 가치로 인정받고, 모든 가치는 정치권력으로 수렴되고 환산되고, 그렇지 않은 가치는 지엽 말단적인 것이 되고, 권력을 장악하면 나머지의 정신적 가치들은 전부 패키지로 획득되는 이런 질서들이 있다 우리 사회에. 그래서 이것이 문제는 정치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치 영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직업 직능 다른 제 분야에도 이런 원칙이 관철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독특한 질서다. 망라적 특권과 복합 특권을 가져요, 권력을 잡으면. 한 번 권력을 잡으면 돈도 생기고 지위도 생기고 존경도 생기고 모든 것이 합리화되고, 이것은 분화적 특권과 다른 요소가 있다.

두 번째, 이것과 연관은 됩니다만, 능력과 업적에 대한 정의, 평가 방식도 매우 독특하다. 뭐냐면 어떤 직능 자체와 관련된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개인이 가진 권력으로서의 환산 가치에 의해서 그 사람의 업적과 삶이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도 이재열 선생님처럼 무슨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내서 평가도 받겠지만, 더욱 중요한 평가는 사회 일반적으로 보면 학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 또는 뭐 장관이 될 수 있는 기대, 이런 것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어떤 사회보다도 농후하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 정치인이 아닌 다른 직능 집단에 종사하는 사람들마저도 누구나 정치인을 닮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는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누구나 끊임없는 패주 지향적 행동, 삶의 오리엔테이션이 발생한다. 그걸 잡으면 정치권력 이외의 다른 자원이나 능력까지도 확보하는 복합적 특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승리하는 자는 이김으로써 모든 면에서 정당화되고, 지는 자는 졌다는 점에서 모든 점에서 그걸로 끝나는, 이러한 획일적이고 집중적 가치 질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다.

세 번째로는 역시 권력과 자원의 배분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굉장히 독특한 배열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시민 단체, 종교 단체, 학술 단체, 경제 단체에서도 패주와의 친화력, 패주와의 사적 거리, 연계망의 강도에 의해서, 즉 자원의 배분 방식이 불평등 분배되기 때문에, 유사 패주, 군왕적 인간이 되지 않고서는 사회적으로 존경이나 지위를 누릴 수 없는, 아까 말씀하신 지위제를 획득하는 데 불리한, 심지어 돈을 벌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할 때도 누군가 높은 놈을 알고 권력자와 친해야만 굉장히 유리한 형태의 행위 구조 내지 의식 구조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침윤되어 있다, 깊이. 그래서 패권에 대한 충성 서열이 굉장히 중요하고, 군왕 사회의 직능적 메리트에 토대로 한 거리보다도 인간적 관계나 주관적 거리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럼으로써 전문가적 업적 기반보다도 사적 연결 기반이 훨씬 더 개인의 출세와 부 축적을 위해서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현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보니까 마지막으로 사회 성원들의 행동전략 마저도 여기에 대응해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을 보면 정치인들을 닮아 있습니다. 정치인 모형을 수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것이 심지어 종교인들도 보면 굉장히 정치인들 같고, 사회 시민 단체에도 정치인이 안 되면 안 되고 ‘억울하면 누구나 출세하라 출세!’ 출세하면 모든 게 얻어지고 설명이 되고 그렇게 되면 배타적이고 선별적이고 독점적인 권력과 지위를 배분받을 수 있는 이 구조, 이것이 만연하다보니까 다른 어떤 사회와 비교할 수 없이 우리 사회에서는 집단 독재, 카르텔 독재, 이런 것이 심화된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을 표준으로 하는 군왕이나 패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가치나 이런 데에서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정통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항상 정통이 있습니다. ‘대학을 가더라도 정통, 서울대학교를 가야 돼! 나머지는 깡이야!’ 그 다음에 어떤 표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강남에 살아야 돼, 강남에 살아야만 성공이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실패예요. 또는 뭐 옷도 루이뷔통을 입어야 해요. 얼마 전에 재미있는 기사가 났는데, 고등학생들이 반에서 전부 노스페이스(Northface) 검정색 점퍼를 입지 않으면 이것은 존재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표준화된 획일적 수렴 구조, 이것도 ‘입퍼서

날'(impersonal) 한 것이죠. 인간하고 관계는 없지만 패왕, 패권적 스탠다드의 획일적 귀일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벗어나면 망하는 것이고, 이것을 잘 따르고 정점에 서면 승자 독식의 패권 독점이 가능해지는 현상이 생긴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우리는 개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나면 패권적 집단에 소속되기를 위해서 경쟁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학교 교육이나 종교마저도 이것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부추기고 조장하고 확대 재생산 시켜서, 교회를 가야 성공하고, 교회 중에서도 특정 교회를 가야만 장관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실제로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대와 예측 속에서 행동하고 선택하는 양상이 발생하고 전면화되고 있다. 이것은 어떠한 사회에서도 없는 독특한 한국만의, 어떤 유사한 나라가 있겠지만, 그러한 배열이고, 따라서 이것을 '베리어블'(variable)로만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념형적으로 한국 사회 패권적 소셜 오더를 말할 수 있다.

인물뿐만 아니라 인간 영역, 삶의 방식 영역, 가치 질서의 영역 속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다. 그러다보니까 영남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경상도 사람이어야만 장관될 확률이 '시그니피컨트리'(significantly) 높아지고, 강남의 타워 펠리스에 살아야 인간적으로 대접받고 행세하고, 재벌만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종교도 그렇게 이용되고 있고, 기독교를 가야 해요. 그 다음에 학벌, 서울대학교를 가야만 인간적으로 대접받고, 이것이 5대 집단 독재 내지 카르텔 독재의 양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러한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설명해야겠다. 표준적 가치에 대한 무조건적 집합적 순응, 이것이 한국의 패권적 지배질서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이 길어져서 여러 피해를 줘니다만, 저도 패권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네요...) 우리 한국 사회의 발전과 오늘날의 고통의 문제는 박정희식 개발 성장 모형을 떠나서는 설명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박정희식 개발 모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늘날의 한국 문제와 고통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박정희가 바로 뒤흔트냐? 박정희 성장 모형은 불균등 성장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영남, 경상도 독점 체제, 재벌 독점

체제, 수출 지향적 체제, 그리고 경쟁 주의적 질서, 물질 가치를 정신 가치나 민주 가치보다 우선시 하는 이러한 배타적, 차별적 가치 질서로의 심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전면적인 성장도 가능했지만, 오늘날의 고통이 왔다는 것이고, 문제는 박정희식 개발독재에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한국 사회의 독특한 사회 질서, 소셜 오더 안에 담긴 여러 측면들을 교정해 주거나 질적으로 전환시켜 주거나 또는 변환시켜주거나 승급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확대 재생산 시켜왔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근대화와 성장이 한국 사회의 내적 질적 변화와 성장을 유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대화와 발전이 완전히 상반된 길을 걸었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통은 첫 번째로 한국 사회라는 독특한 사회 질서를 분석하고 해명하는 사회과학적 노력 없이 규명될 수도 없고, 새로운 전망도 마련될 수도 없고, 두 번째 바로 박정희식 불평등, 불균등 성장 전략이 이러한 오늘날의 고통과 불행과 불신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한다면 성장이 잘못되다 보니까 어떻게 고통이 생긴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이 시기를 넘으면 어떻게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고, 성장 자체가 고통의 원천이 되는, 우리 개발의 모형 자체에서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이러한 파멸적 고통이 결과 되는 양상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